

# 현대시에 나타난 신라정신의 패러디 양상

진 창 영\*

차 례

- |                          |                                |
|--------------------------|--------------------------------|
| 1. 머리말 - 희극미의 몇 측면       | 2) 원전의의 진지함으로 드러남 -<br>진지한 패러디 |
| 2. 현대시에서의 패러디 모습과 골계     | 5. 맺음말                         |
| 3. 풍자 의도로서의 패러디 - 사나운 골계 | 참고문헌                           |
| 4. 향수와 전통 지속성의 패러디       |                                |
| 1) 해학으로 드러남 - 부드러운 골계    |                                |

## 1. 머리말 - 희극미의 몇 측면

예술에서의 희극미 즉 골계미는 객체가 주체보다 나약하고 비소할 때 주체 쪽에서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발생한다<sup>1)</sup>는 것이 미학에서의 일반적 견해다.

원래 골계의 미적 본질은, M.S 까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재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의 충돌에서 이상적인 것의 입장으로 실재적인 것의 부당함이나 부도덕을 부정하거나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데 있다. 즉 현실과 이상, 미와 추, 고상한 것과 비천한 것 사이의 모순과 불일치의 결과라는 것이다.

골계의 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큰 풍자(Satire)는, 날카로운 현실인식으로 현실

\* 위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조동일 「미적범주」, 『한국사상대계』 1권(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참조.

개선이라는 건설적 의도를 가지고 인간의 우둔함과 악덕을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반면 해학(Humour)은 프로이트에 의하면 외부상황에 의한 자극과 그로 인한 고통의 감정을 웃음(Wit)으로 넘기면서 자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지키는 데에 본질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풍자는 공격성의 골계요, 해학은 방어성의 골계다. 이를 조동일은 사나운 골계, 부드러운 골계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가령 대상이 주체보다 힘과 지혜에서 형편없이 약할 때 우리는 흔히 '갖고 논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조롱(Ridicule), 비꼼(Sarcasm) 등이 그것인데 이를 묶어 여유에서 나오는 해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대상이 힘은 강하나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파렴치할 경우 이를 비판 폭로하는 공격성 골계가 풍자라는 것이다.

이 글은 현대시의 패러디 현상들이 이 골계의 미 곧 웃음<sup>2)</sup>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패러디의 책략으로 풍자, 해학, 전통지속의 진지한 패러디 등이 이에 참여한다.<sup>3)</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시에 나타난 신라정신<sup>4)</sup>의 패러디 양상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신라의 소재를 가져와서 신라의 정신에 견주어 오늘날 현실의 부정적 요소들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풍자를 의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판으로서의 목적보다 이 신라의 훌륭한 정신을 본으로 하는 전통에 대한 향수 또는 이것의 보존과 지속의 의도를 가진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패러디의 기능을 지금까지 큰 비중으로 즐겨 사용했던 전자보다 후자 쪽으로 새로운 분석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최종 의도이다.

이 글은 이러한 패러디의 유형을 보이면서 이 중 신라와 관련된 소재 및 그 정신이 현대시 속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필 것이며 아울러 이것은

2) 웃음은 골계, 해학, 유머, 희극미, 웃음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웃음이 쾌감을 동반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도 비정한 것과 다정한 것이 있어 도덕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3) 이 중 물론 진지한 패러디는 웃음은 아니다.

4) 신라정신은 인간과 자연, 현실세계와 영적세계, 삶과 죽음 등이 혼용된 신라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이는 분화된 과학주의가 아닌 통합적 인식방법으로서의 세계관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샤머니즘, 불교정신, 노장사상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즐고, 「신라정신의 노장사상적 연구」(『국어국문학』 123호, 1999.3.15) 참조.

오늘의 우리에게 부정적 현실에 대한 각성을 통하여 현실 개선의 건설적 의도를 가지게 하는 궁극적 의도를 아는 것도 의미있는 일로 여겨진다.

## 2. 현대시에서의 패러디 모습과 골계

패러디란 옛부터 중요한 문화전승이나 학습의 방법으로 있어 왔던 것이다. 용사(用事), 인용, 인유, 모방과 같이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이동되어 다른 것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넓은 의미의 패러디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성의 것을 가져다 쓰되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나 책략을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것은 모두 패러디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원전 pre-text들을 모방하되 현대의 예술 작품에서는 주로 풍자의 의도를 가지고 베끼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알고보면 전부 그것만도 아니라는 것이 본고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즉 해학으로 기능하기 위한 것 또는 과거에의 향수나 전통 보존을 위한 패러디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풍자와 해학은 웃음을 내포하기 때문에 골계의 미에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이 반드시 문학작품일 필요는 없고 일체의 기성품이 모두 패러디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패러디의 범위는 한없이 확대된다.

특히 현대시에 패러디된 대중문화 장르는 영화, 신문의 만화나 기사, 대중가요, 무협지, 상업광고 등 대중문화 장르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그래서 패러디는 인유, 아이러니 까지도 포괄한다. 가령 아이러니도 패러디의 한 형식<sup>5)</sup>인 이유는 다음의 시조를 통해 알 수 있다.

북천이 맑다커늘 우장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질까 하노라 <임제>

임제는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다. 여기서 찬비는 기생 한우의 패러디다. 이

5) 허천(Linda Hucheun)은 아이러니도 패러디 담론의 한 책략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린다허천(김상구·윤여복옮김), 『패러디이론』(문예출판사, 1995) 참조.

시조는 기생 한우(寒雨)를 인유로써 패러디하여 새 의미를 생산코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얼어잔다’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찬비를 맞았으니 몸이 언 채로 오들오들 떨면서 잘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지만 이 속에 내포된 실질적인 뜻은 오늘밤 한우를 만났으니 두 몸을 꼭 얼어 안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자겠다는 것으로 정반대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기생의 소재를 가져와서 패러디한 자의 책략 즉 표면적인 뜻과 실질적인 뜻과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아이러니를 실현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조도 삶의 여유 즉 지적 주체의 우월함에서 나온 골계미를 보인 패러디요 그 하위 범주의 아이러니인 것이다.

그리고 오래 전 많은 문학도들에게 입힌 <법률 춘향전>이란 굴도 이러한 아이러니가 드러난 <춘향전>의 패러디이다. 내용인 즉 고소설 <춘향전>의 여주인공 춘향은 조선조 열녀의 상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옹호되어 왔다. 그러나 <법률 춘향전>에서는 춘향을, 기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양반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기생의 본분을 어긴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여기서 고소설 춘향전과 현대 에세이 법률춘향전 사이의 거리에서 범만능주의가 되어버린 오늘의 각박한 세태를 풍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러디를 통한 풍자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웃음은 여유의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인유를 통한 패러디의 예를 하나 보자.

한 쌍의 남녀(얼굴은  
대한민국 사람이다)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

한 쌍의 남녀(카우보이  
스타일의 모자를 쓴 남자는  
곶장 앞을 보고 - 역시  
남자다, 요염한 자태의 여자는  
카메라 정면을 보고 - 역시  
여자다)가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만 씌여 있다  
동일레나운의 광고  
IT'S MY LIFE - Simple Life

(심플하다!)

Simple Life, 오, 이 상징의  
넓은 사막이여  
사막에는 생의 마팍에 집어던질  
돌멩이 하나 없으니 -  
오규원, <그것은 나의 삶> 전문

이 광고서는 TV에 나오는 '동일레나운의 광고'의 광고문안과 영상을 그대로 언어로 담아낸 패러디이다. 시작품의 제목인 '그것은 나의 삶'은 바로 이 광고문안의 일부 'IT'S MY LIFE'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패러디는 기성품의 모방일지라도 어떤 의도를 가진 전략으로서의 모방이다. 따라서 패러디는 전략적 모방의 성격이 짙고 이것 자체가 이미 창의적 요소를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참다운 패러디에 표절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에서 보았듯이 지금껏 패러디는 이러한 풍자나 아이러니에서 나타나는 거리와 차이를 즐기고 비꼬는 태도가 주류인 것처럼 여겨져 왔고 또 많은 문학작품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쪽으로만 오늘날 패러디의 기능이 치우치다 보니, 이런 사정에 힘입어 묵인되는 표절, 발빠른 이미지 조작과 변형 그리고 문화산업의 손쉬운 생산과 복제기술로 그 기능을 떨어지게 하여 건설적 기능을 위장한 저급 문화를 부추기는 온당치 못한 역기능을 초래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패러디의 목적은 결코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말한 바 대로이다. 그것은 패러디가 비꼼과 조롱조만이 아닌 순기능으로서의 과거 원전에 대한 향수나 전통의 지속성과 보존의 의도가 목적인 것도 많다는 점이다. 신라의 회극미가 앞서 말한 부드러운 골계에서 나오는 여유와 웃음도 많이 있듯이 현대시에 패러디된 신라의 모습도 이러한 문화전승과 창조를 위한 핵심 방식으로서의 '진지한 패러디'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시에서 신라를 패러디한 것들 중 패러디의 이러한 두 측면을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

6) 박태일 「이동순 시와 패러디의 논리」(『한국문학논총』 제19집, 1996.12) 참조.

### 3. 풍자 의도로서의 패러디 - 사나운 골계

신라와 관련된 소재를 현대시에 패러디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폭로 야유 비판 등을 목적으로 한 풍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들을 중심으로 본다. 이런 시들은 주로 과거의 전거를 패러디의 대상(pre-text or source-text)으로 하여 패러디한 작품(target-text)을 통해서는 주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웃음을 통한 정화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물론 여기서의 웃음은 부드러운 골계의 해학이 아닌 사나운 골계에 해당된다.

슬취한 處容 씨(33세. 울산시 남구 개운동)가 공업탑로터리에서 춤을 춘다. 그의 아내는 일주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도시의 상징인 푸른 작업복은 누런 때에 찌들었으며 어린 아이와 늙은 어머니는 오늘 저녁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으리라. 달 밝은 그날 밤 야근을 하지 않고 돌아온 것이 잘못이었을까. 疫神같이 전장했던 그 사나를 용서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공업화로 일찍 시든 그의 청춘 때문인가. 하루하루 몸은 야위어 가고 다달이 월급봉투는 기름져 갔다. 검은 강은 입안부터 썩어 가 구취를 풍기고 떠나간 물고기와 새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는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전라의 춤을 추는 아내를 보았다고 했다. 누구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아내를 보았다고 했다. 누구는 憲康王을 따라 서라벌로 도망가는 아내를 보았다고 했다.//

處容 씨가 춤을 춘다. 슬픔으로 수그러진 어깨와 탄식으로 늘어진 소매를 가진 處容 씨가 마침내 호느킨다. 얼굴 가득 피어나는 열꽃들을 견디지 못해 호느끼며 춤을 춘다. 자정 지나자 저마다 열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수많은 處容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 나와 춤을 추고, 거대한 이 도시가 밤마다 기어 나와 어기적어기적 함께 춤춘다.

정일근 <취재수첩·16 - 處容의 도시> 전문

이 시는 기자 신분을 가진 시인의 취재수첩에서 소재를 가져온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매일 힘든 노동에 지친 한 근로자 가정의 일상과 바람난 아내의 가출을 취재한 정식을 취하면서 처용설화를 패러디하고 있다.

원래 처용설화의 처용은 약자로서 아내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내를 침범한 역신을 옹아매기 위한 미인계를 사용했던 계략자 곧 트릭스터로서의 처용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나아가 처용의 진면목은 미인계라는 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춤추며 물러난 데 있다는 것이다.<sup>7)</sup>

이런 신라 처용의 여유로서의 부드러운 골계<sup>8)</sup>가 이를 패러디한 오늘의 이정일근의 시에서는 공업화와 환락에 빠져든 현대사회를 풍자하기 위한 사나운 골계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말해 원전의 해학이 패러디 작품에선 풍자를 위한 전략에 변환되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가출한 근로자의 아내는 처용설화의 처용의 아내에 견주어지고 아내를 가출케 한 건장한 사내는 처용설화의 역신에 견주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연에서 흐느끼며 춤추는 처용씨는 처용설화 속에선 여유만만했던 처용이 풍자를 위해 변환되어 견주어져서 패러디된 것이다.<sup>9)</sup>

궁극적으로 처용설화를 패러디한 이 시의 의도는 이런 비극을 있게 한 현대 사회의 도덕 타락과 쾌락주의 그리고 공업화에 의해 병들어 가는 삶의 환경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시의 말미에 보이는 현대의 수많은 처용들이 물러나와 군무를 추는 절정의 장면은, 쾌락의 유혹에 넘어간 부도덕한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처용씨를 위로하는 살풀이의 춤이다. 그러면서도 쾌락을 즐기는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유흥가 밤무대 끝 나이트클럽의 풍경으로 패러디한 시인의 의도도 숨어 있다.

이상 처용설화의 패러디는 그 자체가 쓴웃음 비극적인 웃음을 가진 풍자 책략의 패러디인 셈이다. 왜냐하면 쾌락추구라는 '실재'와 도덕성 추구라는 시적 주체의 '이상'과의 충돌을 통하여 이상적인 입장에서 실재적인 것을 폭로한 골계의 본질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이상적인 것이 패배한 경우이므로 비극적인 웃음인 셈이다. 그리고 희극(comedy)이란 것도 원래는 내용상

7) 엄국현, 「한국고대가요와 어릿광대의 세계」, (『한국문학논총』 20집, 1997.6), p.207. 그를 동해용왕의 아들로서 신이면서 동시에 미녀와 급간의 벼슬에 회유되어 인간 세계로 돌아온 인간이며, 탈속한 초인이자 무력한 체념자이기도 한, 그래서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망 속에서 그 정체가 모호한 인물로 보기도 한다. 이 모호성이 바로 끊임없는 질문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황도경, 「우리 시대의 처용」, 『한국 패러디 소설연구』(국학자료원, 1996), p.56]

8) 미적 범주론에 의하면 골계미는 주체가 객체보다 우위에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9) 이는 고전시학의 환골탈태론에서 환골 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갈래로 볼 때 슬픔(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건강한 웃음을 본질로 한 것이 그 하나의 갈래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희극 중에는 슬픔을 바탕에 깔 웃음 곧 비극적인 웃음이 많다. 김춘수의 연작시 <처용단장>을 보자

바다가 외종일

새앙취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이따금 바람은 關麗水道에서 불어오고

느릅나무 어린 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유년의 공간적 배경 묘사다 : 펠자주, 이하 괄호 속의 주석은 모두 펠자주임)

< I 의 I >에서

삼월에 눈이 오고 있었다. (지금껏 대해보지 못하던 새 세계의 열림)

눈은 라일락의 새 순을 적시고 ('라일락의 새순이 눈에 적셔진다' : 유년의 시적 자아가 새세계를 만난다?)

피어나는 山茶花를 적시고 있었다. (피어나는 산다화같은 유년의 기존 인식을 적신다?)

미처 벗지 못한 겨울 털옷 속의

일찍 눈을 뜨는 남쪽 바다,

그날밤 잠들기 전에

물개의 수컷이 우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성장기의 퇴행적 과거와 새 세계와의 갈등에서 오는 괴로움?)

< I 의 II >에서

벽이 걸어오고 있었다.

늪은 채나무가 걸어오고 있었다. ('벽'은 불박이요, '늪은 채나무'는 항상 같은 곳에 있던 사물로, 지금까지의 타성)

한밤에 눈을 뜨고 보면

濠洲 宣教師네 집

回廊의 벽에 걸린 靑銅時計가

겨울도 다 갔는데  
현?)

(전혀 새로운 세계에의 열림과 경

검고 긴 망토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다

내 곁에는

바다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자는 바다를 보면

바다는 또 제 품에

승어새끼 한 마리 잠재우고 있었다. (기존 세계에의 안주를 위한 停滯?)

다시 또 잠을 자기 위하여 나는

검고 긴



한밤의 망포 속으로 들어가곤 하였다. (두 세계 사이의 갈등 심화)  
 바다를 품에 안고 (그러나 바다는 자아의 모성, 안식처)  
 한 마리 송어새끼와 함께 나는  
 다시 또 잠이 들곤 하였다.

< I 의 III >에서

거슬리긴 하지만 편의상 시 오른쪽에 주석을 붙였는데, 이 시에서 이미지 서술은 알고 보면 이 주석과 같이 유년의 경험과 겹쳐짐을 알 수 있다.

긴 연작시의 일부를 옮긴 것인데 작품 속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도 제목이 ‘處容斷章’인 것을 보면 지은이가 처용을 패러디로 삼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 이 점은 ‘처용’을 제목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의 다른 시들 즉 <잠자는 처용> <처용> <처용삼장>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고, 이들 시보다 먼저 씌어진 자신의 유년시절을 형상화하고 있는 그의 소설 <처용> 역시 마찬가지다.

고대설화 속의 처용은 원래 용의 아들이라는 신적 존재에서 인간화 과정을 거친 이후 아내를 빼앗기며 새 세계에서 부딪히는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다시 욕심없고 초탈한 인간의 사표로서 인간의 신화(神化)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존재이기도 한, 항상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며 변모를 거듭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상정하여 보면 이해가 될 만하다.

이 시에서는 바다와 함께 자랐던 유년시절의 암울하면서도 환몽으로 가득찼던 추억이 의미가 제거된 채 돌발적인 단어의 연결에 의한 장면 이미지만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인 김춘수 개인의 성장기 유년시절의 사회화 과정에서 열리는 새로운 의식세계와 가치체계로 말미암아 기존 관념과의 사이에서 오는 어리둥절함, 그리고 과거적 자아에의 정체와 새로운 자아에의 진보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는 과정들이다. 이 점은 I 의 II 와 I 의 III 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곧 바다를 떠나 인간화 과정을 거친 이후 새로운 인간세상에서 경험하고 갈등했던 설화 속의 처용의 의미망과 겹쳐지는데 다만 이 시에서는 이러한 유년의 경험과 갈등을 직접 인유하지 않고 무의미시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묘사’만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패러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처용을 패러디하여 지은이의 유년의 모습을 드러낸 시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패러디한 자의 의도가 무엇이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새로운 시 장르의 실험을 위하여 기존의 시들을 거부하기 위한 희화(戲化)를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김춘수의 또 다른 시로서, 서사시라고 이름붙여 백결선생의 일대기를 시화한 <狼山의 樂聖>이라는 직접적인 패러디시도 있다. 이 역시 신라 거문고의 악성 백결선생의 일대기를 묘사로서의 이미지 연결만으로 이루어진 패러디시이다. 여기서의 논의는 생략한다.

이와같이 김춘수의 시에 패러디된 신라의 소재는 관념을 형상화하는 대부분의 기존 시들Metaphysical poetry을 부정하기 위한 좀 특이한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시적 지론인 의미 제거의 무의미시Physycal poetry를 구현하기 위한 제제로써의 패러디이고, 사물의 기존 의미를 제거하여 (이미지 자체가 목적인 이미지의 시 구현)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소재로서의 패러디인 셈이다. 즉 자신의 유년시절 갈등과 새로운 경험의 기억을 서술하기 위해 인간화 이후 갈등하는 신라의 처용을 제목만으로 패러디하고 있다. 이것은 무의미시의 실험에 기존의 시들을 비꼬기 위해 희화적으로 패러디된 경우라 하겠다.

따라서 관념 표현의 도구로서 존재해 왔던 기존의 시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폭로하려는 건설적 의도가 숨어 있는 풍자로서의 패러디라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풍자 속에는 시적 기법의 실험을 위한 슬기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지(機智, wit)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김수영의 시도 이런 풍자적 패러디를 보인다.

聖俗이 같다는 元曉大師가  
텔레비에 텔레비에 들어오고 말았다  
배우이름은 모르지만 大師는  
大師보다도 배우에 가까웠다

그 배우는 食母까지도 싫어하고  
신이 나서 보는 것은 나 하나뿐이고  
元曉大師가 나오는 날이면  
익살맞은 어린놈은 活劇이 되나하고

조바심을 하고 食母아가씨나 가게  
 아가씨는 연애가 되나 하고  
 애타하고 元曉의 염불소리까지도  
 잊고 — 罪를 짓고 싶다

돌부리를 차듯 서투른 元曉로  
 분장한 늙이 돌부리를 차고 풀을  
 뽑듯 罪를 짓고 싶어 罪를  
 짓고 얼굴을 붉히고

罪를 짓고 얼굴을 붉히고 —  
 峯俗이 같다는 원효대사가 텔레비에 나온 것을 넘어치지 않고  
 春巖 대신의 原作者가 된다

宇宙時代의 마이크로웨이브에 탄  
 元曉大師의 敏活性 바늘 끝에  
 묻은 罪와 먼지 그리고 襟傲  
 술에 취해서 쓰는 詩어

<元曉大師 - 텔레비를 보면서>에서

어쩌면 진짜 원효를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는 텔레비 속 원효의 모습을 보니 '나'도 갑자기 서투른 원효로 분장하여 미친척하고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보이는 모습이 시의 뒷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속(俗)으로 돌아온 불교, 민중불교의 창시자 원효를, 배우가 분한 원효를 TV 속에서 보면서 참다운 원효대사를 생각하게 되고 역시 TV 속의 원효는 '大師보다도 배우에 가까울 뿐'이라는 현실 풍자가 첫 장면이다. 성과 속을 동시에 추구한 인물이어서 그런지 드디어 TV에 까지 나오게 되고 보니 역시 배우 원효일 수밖에 없는 속세의 현실 곧 TV가 모든 인물까지 만들어 내게된 현실을 비꼬는(sarcasm) 태도를 시적 자아가 취하고 있다. 이것은 TV가 우리 생활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현실을 성찰하자는 의도인데 여기서 풍자의 본질을 발견한다.

이렇듯 성을 추구하면서 속을 지향한 이중적 의미의 원효라는 신라의 인물을 패러디하여 우리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고 또 이 TV 속과 같은 이중적 의미의 아이러니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도 한다. 그러면서 시적 자

이는 아무래도 이 회화적인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해서 이를 극복하는 길은 자신도 '서투른 원효로 분장하여' 미친척하고 '죄를 짓'는 길밖에 없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춘원 대신' 엄숙한 '원작자가 되'기도 하며 술에 취하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원효 패러디의 현실 풍자가 아닌가.

결국 성과 속을 함께 추구한 신라의 원효대사는 현대사에서 현실 비판의 풍자로 패러디되고 있는 것이다.

#### 4. 향수와 전통 지속성의 패러디

##### 1) 해학으로 드러남 - 부드러운 골계

앞서 말했듯이 해학은 여유와 웃음이요 방어성의 골계이다. 즉 받아넘기는 여유와 웃음으로써 부드러운 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해학은 풍자와 같이 폭로나 비판의 의도를 가진 패러디라기보다는 윌테스트(가령 신라)에의 향수와 이것에의 지속성을 의도한 패러디의 일종에 해당된다.

이러한 여유로서의 해학은 신라를 패러디하여 오늘의 현실 비판을 의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렇듯 여유로왔던 신라인의 정신에 대한 향수와 전통지속성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앞 항목의 풍자로서의 패러디도 과거의 훌륭한 신라정신을 패러디하여 오늘의 우리 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것 역시 향수와 전통지속의 의도를 가진 패러디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풍자의 의도를 가진 패러디의 경우는 그 자체가 단순한 신라에의 향수나 그 지속성을 의도한 것과는 구분되어 근본 목적이 비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변별이 이루어질 줄로 안다. 즉 비판정신을 가진 것과 전통지속성을 가진 것과는 직접 시를 보면 그 근본목적에서 자연스레 변별이 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시에서 이 점이 드러나리라 본다.

바젠세일 레코드 상점을 찾아 맨하탄으로 나갔다 / 지금이라면 원효도 지하철을 탔을 것이다 / 우리처럼 빈 손이었을 것이다 / (거지의 마음

/ 그 견딜 수 없이 가벼운 / 지하철을 내려 地上으로 올라와 / 험령한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 慶州 거리보다 계속 직각으로 뚫려 바람이 세찬  
長安거리를 / 한없이 작고 가벼운 존재가 되어 걸었을 것이다.

황동규 <견딜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 에서

조직사회라는 외부상황의 억압으로부터 사회역사적 상황의 중압, 제제나 이데올로기의 중압에서 해방되는 방법으로 신라의 원효를 패러디한 것이다. 외부상황의 자극과 그 고통을 여유의 웃음으로 받아넘겨 자이를 지키려는 방어성 골계 곧 해학의 본질에 부합되는 것이다. 즉 신라 때 원효의 거리낌 없는 선적 자유의 정신을 패러디한 것인데, 앞서 김수영의 시에서 보았듯이, 성숙을 함께 추구한 원효의 정신에 대한 향수 혹은 전통지속의 의도하에 이렇듯 현대인의 일상성 속으로 끌어들이 삶의 중압감을 받아넘기는 선적 분위기로 시화한 것이다.

이렇듯 현대사에서 신라를 패러디한 것 중 과거 신라의 훌륭한 정신적 전통의 지속과 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로서 해학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찾아내면 더 많이 있을 것이나 이 정도로 줄이기로 한다.

## 2) 원전에의 진지함으로 드러남 - 진지한 패러디

여기서는 부드러운 골계의 해학과 여유의 '웃음'이라기 보다는 원전에 대한 향수와 전통 지속성을 의도한 패러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원전 또는 원전의 정신 그 자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던지 또는 이를 본받자는 것이던지 또는 이에 대한 지속과 계승의 의도를 갖고 있는 진지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패러디는 원전을 가져다 쓰되 비판을 위한 풍자 또는 방어성의 해학 등을 위하여 변형시킨 것이 아니라 원전 본래의 정신 그 자체에 대한 지속성의 의도를 가진 것이므로 이를 진지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패러디라고 해서 모두 골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에도 이는 진지한 패러디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점도 본고의 한 가지 논점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서정주의 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에서의 패러디 양상은 이렇듯 진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新羅사람들은 무엇이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늘의 빛을 섞어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新羅 第八代 阿達羅王 때에 비단 옷감을 유난히 잘 짜던 延鳥와 細鳥夫婦가 日本으로 가고 나니 新羅의 햇빛이 한동안 흐려졌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도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겐지요.

그 햇빛이 흐려지고 있는 걸 못 견디어서 日本으로 延鳥와 細鳥를 찾아가 그들이 주는 생명주 한 필을 받아다가 迎日灣에서 해 앞에 바쳐놓고 祭祀했더니 겨우 하늘의 햇빛이 제대로 밝게 비치기 비롯했더라는 것도 물론 '하늘의 빛도 그걸 빛낼 만한 자의 빛낼 만한 일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라'는 檀君 어룬 때부터의 우리 風流의 마음을 또한 번 잠시 번뜩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 ..... — 「三國遺事」卷一, 延鳥郎 細鳥女 條 參考

서정주 <新羅風流 1> 전문

신라 이야기를 수없이 인용한 미당의 시들 중 하나다. 미당 시의 신라정신을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 현실세계와 영적세계, 삶과 죽음 등의 관계를 분화시키고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는 통합적 인식 방법으로서의 세계관<sup>10)</sup>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도 이런 세계관이 배어 있는 시다. 이 시에서 '풍류'라는 말은 이런 천·지·인의 통합적 세계관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시 자체에서 서술되고 있는 바 대로이다. 즉 '하늘의 빛을 섞어 일하기를 좋아한 신라 사람들'과 그 대표적인 예로 연오와 세오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신라인의 이러한 정신을 함모하는 신라적 전통 지속에의 의도를 가진 진지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다.<sup>11)</sup>

이 외에 미당의 신라 패러디에 관한 시들은 그의 시에서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 것<sup>12)</sup>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 예시와의 대비를 위해 위의 것을 택했다.

이러한 인용을 통한 패러디를 보이고 있는 미당의 시들 중 풍자의 패러디인지, 해학 즉 부드러운 골계로서의 패러디인지 또는 전통 지속성의 진지한 패러디인지의 구별은 시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것은 미당

10) 줄고, 앞의 「신라정신의 노장사상적 연구」 참조.

11) 이 외에 <선덕여왕찬> <사소 두 번째의 편지 단편> <雨中有題>를 비롯, 시집 『학이 울고간 날들의 시』에 실린 수많은 시편들이 대체로 이런 부류의 것들이다.

12) 줄고, 위의 「신라정신의 노장사상적 연구」 참조.

시에서만 별도로 다루어야될 또 하나의 과제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 남자를 묻은 팔월에 눈이 내렸다 / 팔월 무릎에 붉은 나무들 차  
 가운 잎을 달고 / 서라벌은 알 수 없는 기이한 슬픔에 잠겼다 /...(중략)...  
 / 金入宅들은 빛을 잃고 향가 소리 그쳤다 / 가끔 전지가 어둡히고 /  
 하늘의 별들 꼬리를 물고 떨어졌다 / 왕의 근심 깊어가듯 연못들은 말라  
 가고 / 여름에는 가뭄이 겨울에는 장마가 계속됐다 / 마침내 나라의 모  
 든 슬픔의 우물 말라 / 한 남자의 죽음이 한 여자를 거둘 때 / 감은사 쌍  
 탑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 / 삶과 죽음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보았다  
 정일근 <감은사지·8 一哀莊王 末年 戊子 八月 十五日에 눈이 내렸다.  
 三國遺事>

차기 왕이 된 懿德 興德 두 숙부에게 시해된 비운의 왕 삼국유사 속 哀莊王  
 의 일화를 진지한 패러디로 보인 것이다. 천륜은 곧 하늘의 이치이기에 이를 어  
 겼을 때 어떠한 재앙이 내려지는가를 시인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시로서 하늘  
 의 뜻을 중시하는 천인합일의 신라인들의 사고방식을 보이려 한 것인데 이는  
 곧 오늘의 현대인이 본받을 정신이라는 점에서 진지한 패러디인 것이다.

팔월에 눈이 내리는 기이한 일기 현상은 하늘의 뜻이었기에 더불어 이와 일  
 체되어 살던 신라인들에게는 이것이 곧 여러 재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신라인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의 미당의 시에서도 하늘의 변괴와 관  
 련된 현오랑 세오녀 설화를 통하여 신라인들의 사고와 세계관을 보인 바 있는  
 데 정일근의 이 시 역시 이와 동일한 제재를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제 면에  
 서도 신라인의 통합적 세계관을 말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는 앞의 서정주 시와  
 일치되고 있다.<sup>13)</sup>

원로시인과 젊은 시인의 시세계가 신라라는 제재속에서 거의 같은 주제와  
 같은 분위기의 정서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 신라라  
 는 역사적 정신적 실체는 시대와 개체를 달리할지라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같  
 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우리 민족 저변의 정체성 때문인 것이다.

정일근의 또 다른 시를 보자.

13) 이 외에도 정일근의 시집 『처용의 도시』와 『경주남산』에 실린 상당수 시들이  
 이와 같은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

탑은 달을 꿈꾸었는지 몰라 / 버려진 세월의 뱃속 가득 푸른 이끼만  
 차고 / 邊方의 돌들의 이마는 시나브로 굽이 갔다 / 그 굽 사이 무심한  
 바다가 들여다보곤 돌아갔다 / 千年 전 바람은 피리구멍 속에 잠들었고 /  
 신화는 유사 행간 사이 숨어 버렸다 / 문득문득 사라진 절의 풍경소리  
 들리고 / 향아리마다 칠월 보름달이 떠오를 때 / 저기 사랑하는 신라여인  
 이 긴 回廊을 돌아간다...(중략)... / 천년의 사랑아 내가 너를 안을 수 있  
 다면 / .....돌 속에 묻힌 혀는 무겁기만 한데...(중략)...어허 탑마다 즐거운  
 滿月이다 / 내가 탑이다

<감은사지 · 1> 에서

문무왕과 김유신의 우국정신이 나라의 환란을 잠재우려 현현했다는 만파식  
 적설화를 패러디 하되 풍자나 비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신라에 대한 회고  
 와 상상력을 통한 향수를 드러내면서 선조들의 정신에 대한 소중함과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은사지  
 변방 돌들은 시나브로 굽이 가고 그 사이 무심한 바다가 들여다보고 갈 정도로  
 세월의 간극은 우리를 무심하게 만들었고, ‘천년 전 바람은’ 만파식적의 ‘피리구  
 명 속에’ 지금껏 잠들어 있으며, ‘신화는 유사(삼국유사:필자주)의 행간 사이에  
 숨어버렸’듯이 천년이라는 세월의 안타까움만을 더하는 시인의 슬회다. 이러하  
 여 ‘탑마다 즐거운 만월’을 꿈꾼다. 여기서 신라의 부활을 꿈꾸는 패러디한 자의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패러디로 보는 것을 다소 의아하게 여겨  
 지는 이유는, 현대에 오면서 패러디의 경향이, 주로 1차 환경인 자연을 버리고  
 2차 환경인 문화를 주대상으로 삼아버린 ‘후기자본주의의 문화 현상’을 주로  
 ‘풍자’하는데 비중을 두어버렸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런 후기자본주의적 문화현  
 상이 아닌 ‘원전(과거적 전통)’에의 ‘향수와 그것의 지속성’을 드러낸 경우도 모  
 방과 인유를 통하여 패러디한 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면 이는 당연히 패러  
 디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향수와 전통지속성의 의도를 가진 패러디는 웃음을 가진 풍  
 자나 해학을 의도한 패러디가 아닌 진지한 패러디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 5. 맺음말

적어도 오늘의 문학적 관점에서 필자가 본 신라정신은 인간과 자연, 현실세계와 영적 세계, 삶과 죽음 등이 혼용된 신라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이는 분화된 과학주의가 아닌 통합적 인식방법으로서의 세계관이고 이러한 신라정신을 현대시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패러디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 또는 그 정신을 패러디한 현대시들에서 그 패러디 현상들이 골계 곧 웃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일차적으로 주목하면서 ‘풍자’ ‘해학’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 패러디 양상은 골계 즉 웃음 뿐만 아니라 과거의 훌륭한 정신에 대한 지속과 계승의 의도를 가진 ‘향수와 전통 지속성’을 가진 것도 있어 이것은 지금까지의 패러디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요컨대 이 패러디의 책략으로 풍자, 해학, 전통지속의 진지한 패러디 등이 이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골계 곧 웃음을 드러내는 것에는 풍자와 해학만이 해당되며 향수와 전통지속의 패러디는 웃음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지한 패러디인 것이다.

여기서 풍자는 신라정신을 패러디하여 오늘날의 부정적 현실을 폭로 비판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의 웃음이고, 해학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여유의 웃음으로 받아넘기는 방어성의 웃음이다.

이런 전제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신라의 패러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의 현실과 실재 대상에 대한 ‘풍자의 의도’하에 신라를 패러디한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신라인의 슬기와 그 정신을 패러디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의 우둔함과 악덕을 깨우치고 폭로하는 비판정신의 풍자를 수행함으로써 웃음의 골계미 즉 이상적 자아가 실제적 자아를 이기는 경우 곧 주체가 객체보다 우월할 때 관조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미를 보여주는데 이는 사나운 골계의 측면이다.

둘째, 훌륭한 ‘옛것에의 향수와 그것에 대한 지속성의 의도’를 가진 신라 패러디가 그것인데, 여기에는 현실적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여유로써 받아넘기는 방어적 성격의 골계 곧 웃음을 가진 ‘해학’의 부드러운 골계를 하나 들 수 있고,

또하나는 웃음으로서의 골계라기 보다는 '원전예의 진지함' 곧 전통지속성 의도를 드러내는 진지한 패러디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이론』(태학사, 1997)
- 김대행, 『시가지시학연구』(이화여대출판부, 1991)
- 김문환, 『미학의 이해』(문예출판사, 1994)
- 김수영, 『김수영 전집』 1(민음사, 1984)
- 김준오, 『도시시와 해체시』(문학과 비평사, 1992)
- , 『한국현대장르비평론』(문학과 지성사, 1991)
- 김춘수, 『김춘수시선 처용단장』(민음사, 1974)
- 박종석, 「고전시론과 현대시론의 한 접점 연구-용사와 패로디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1호(한국시학회, 1998)
- 박태일, 「이동순시의 패러디의 논리」, 『한국문학논총』 제19집(한국문학회, 1996. 12)
- 서정주, 『미당 서정주 시전집』 1, 2, 3. (민음사, 1996)
- 엄국현, 「한국고대가요와 어릿광대의 세계」, 『한국문학논총 제20집』(한국문학회, 1997.6)
- 이순욱, 「풍자와 패러디」, 『한국현대시와 패러디』(현대미학사, 1996)
- 정끝별, 『패러디 시학』(문학세계사, 1997)
- 정일근, 『처용의 도시』(고려원, 1995)
- , 『경주남산』(문학동네, 1998)
- 조동일, 「미적 범주」, 『한국사상대계』 1권(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진창영, 「신라정신의 노장사상적 연구」, 『국어국문학』 123호(국어국문학회, 1999. 3. 15)
- , 「미적 범주에서본 남북한 시의 공유점 고찰」, 『한국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적 탐색』(새미, 1998)
- 황도경, 「우리 시대의 처용」, 『한국패러디 소설 연구』(국학자료원, 1996)
- Linda Hutcheon(김상구, 윤여복 옮김), *A Theory of Parody*(문예출판사, 1995)
- N. Hartmann(전원배 역), *Ästhetik*(을유문화사, 1987)

Abstract

## The Silla Spirit and it's Aspects of Parody in Modern Poetry

Jin Chang-Young

The brief, the Silla spirit refuses Western rationalism and specialized scientism. It is characterized by the integrated way of life which relates man to nature, real world to eternal world, and life to death, or by the unified world vision. Yet we should not ignore that the wisdom of Western rationalism can be found in it.

Modern poems demonstrate some aspects of Silla spirit by parody. This study primarily uncovers that the modern poems which parody the Silla spirit retain laugh. Satire, humor and serious parody are involved in it. Satire and humor demonstrate lough among them. The one is offensive laugh arising from criticizing contemporary negative reality by parodying the Silla spirit, whilst the other is defensive laugh arising from enduring hardship and pain.

The aspect of Silla follow : first, Silla is parodied by the intention of satire concerning contemporary phenomena and reality. It arises when ideal self overdoes real self, or the subject dominates the object. By parodying the wisdom and spirit of Silla, we can understand contemporary foolishness and vice : this is aggressive aspect of parody.

Second, Silla is parodied by the intention of nostalgia for the past and of its maintenance. It has two aspect : one is defensive laugh or soft laugh which retains humor, arising from enduring the present hardships. The other is serious parody which reveals the faithfulness towards the original, or maintenance of the traditional.